

원희룡 장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특별시행 지시

- 첫째도 둘째도 고속도로 이용자인 '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' 당부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(화)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하였다.
 - 첫째, "최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사고, 도로 살얼음 추돌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"을 지시하였다.
 - 특히, 해빙기를 앞두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터널, 교량 등을 신속하게 전수 점검하고, 재난 시 비상탈출로 확보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
 -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인 사고 발생률이 높으므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, 도로 구조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속도로 선형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.
 - 둘째, "한국도로공사 수익보다 국민 편익이 우선임을 명심하고, 고속도로 휴게소 가격, 품질부터 전기차 충전 편의성까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각에서 점검해줄 것"을 지시하였다.
 - 셋째, "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혁신은 물론 무사안일과 부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끊임없는 조직 쇄신도 필요하고, 특히 퇴직자를 고리로 하는 제 식구끼리의 먹이사슬을 과감히 혁파할 것"을 지시하였다.
- 이와 함께 원 장관은 "도심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께 출퇴근 시간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경인, 경부 등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"을 강조하였다.

2023. 2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